MARKET
STRATEGY

2026. 1. 28.

글로벌투자전략팀

전종규 Senior Analyst
juhn21@samsung.com

박주란 Research Associate
juran.park@samsung.com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26년 중국 투자의 정석

China AI Pivot – 산업 고도화와 머니무브

- **주식시장 리뷰:** 장기 베어마켓의 종료, 주식시장 고도화 관문
- **'26년 증시 환경:** 1) 매크로 리스크 완화, 2) 산업 고도화, 3) 머니무브
- **투자 전략:** 차이나 AI 테크에서 찾는 투자 기회

주식시장 리뷰: 장기 침체 국면 종료

- **중국 주식시장이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중국 증시는 (I) 자본시장 구축기('90~05년) → (II) 양적 팽창기('06~20년)를 거쳐 (III) 자본시장 고도화('21~ 35년)**에 진입하고 있다. 중국 자본시장은 '07년 금융위기', '15년 유동성 버블'의 두 차례 Boom bust 장세와 함께 10년의 장기 침체 국면이 이어진 바 있다. 중국 증시는 자본시장 고도화의 관문 앞에 서 있다. 중국 자본시장의 고도화는 1) 정부 정책, 2) 펀더멘털, 3) 유동성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개선이 결합되어야 하는데, 시진핑 3기는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집행(국유 기업 개혁, ROE 개선 정책)을 시작하였고 15.5 경제규획 기간 동안 산업 고도화와 가계자산의 머니무브가 진전될 것으로 예상된다.

'26년 증시 환경: 산업 고도화와 머니무브

-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머니무브를 주목한다.** 중국 정부는 AI 테크 중심의 산업 고도화를 천명하였다. 차이나 AI 테크의 부상은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주시해야 한다. 중국 첨단 제조 전략은 제조 2035와 AI 플러스로 진행될 것이다.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략 산업의 상용화 시점은 좋은 투자 기회이다.**
- 중국 증시의 머니무브는 긍정적인 변화이다. 역사적인 초저금리와 부동산 장기 침체로 인해 가계자산이 채권/주식시장 투자로 이동하기 시작하였다. 15.5 규획 기간 동안 부동산 침체 + 초저금리 +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계자산의 머니무브가 확대될 것이며 2030년 가계 금융자산은 10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 전략: 차이나 AI 테크에서 찾는 투자 기회

- **중국 주식시장의 점진적인 지수 상승을 전망한다.** 15.5 경제규획 기간 동안 친자본시장 정책, 산업 고도화와 머니무브의 삼각 축이 확대된다면 증시의 만성적인 밸류에이션 트랩에서 벗어나고, 중국의 시가총액은 버핏 지수 1.0에 해당되는 30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 '25년 말 기준 한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 보유 규모는 30억 달러로 해외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까지 급락하였다(미국 93.7%). 중기적 관점에서 중국 투자 비중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AI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과정 중에서 미-중 기술 전쟁이 이루어질 것인데 경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 **'26년 차이나 포트폴리오의 키워드는 『산업 패러다임 변화와 차이나 AI 테크』이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 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

삼성증권

주식시장 Review

10년 Bear market 종료

자본시장 고도화의 관문

중국 주식시장이 장기 침체에서 벗어나 상승세로 전환되었다.

- 중국은 **(I) 자본시장 구축기('90~05년) → (II) 양적 팽창기('06~20년)를 거쳐 (III) 자본시장 고도화('21~35년)**에 진입하고 있다. 신흥 주식시장이 폭발적인 시가총액 증가 구간에서 경제 고성장에도 불구하고 〈지수 정체〉 현상을 동반하는 것은 주식 공급 확대와 부채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경기 호전 시점에 기업은 적극적인 직접 금융 조달(IPO와 유상증자)로 인해 Equity dilution이 발생하고 경기 하강기에는 경쟁심화와 부채 리스크에 노출되면서 Boom bust 장세가 주기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한국 코스피의 1989~2007년 1,000~2,000pt 밴드와 상해 지수 '06~25년 2,000~5,000pt가 대표적인 사례에 해당된다.
- **중국 주식시장은 '07년 금융위기', '15년 유동성 버블'의 두 차례 Boom bust 장세와 함께 장기 침체가 이어진 바 있다.** 중국 증시의 장기 침체는 『구조적인 위험』을 반영한 것이다. '06년 이후 중국의 부채에 의존한 고속성장은 제조업/부동산 공급 과잉과 부채 위험을 확대시켰고 '18년 미중 분쟁과 팬데믹을 기점으로 중국은 부동산 버블 붕괴와 공급 과잉 제조업이 야기하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었다.

중국 주식시장 성장 단계

단계	기간	주요 경과	지수 레벨
I. 자본시장 구축기	'90~05년	• **상해(90.12월), 심천('91.7월) 증시 개장** • 증권관리 위원회 출범('92.10월) • 시장화 비유통주 개혁('05년)	• 상해 1,500pt • CSI 300 1,000pt
II. 양적 팽창기	'06~20년	• **증시 개방(후강통, '14년 7월 → 금융산업 개방 '18년)** • Boom bust 장세: '07년 금융위기 '15년 유동성 버블 • 기술주 시장 개장(09년 차이넥스트, 19년 커창판)	• 상해 1,000~ 5,000pt • CSI300 2,000~ 5,000pt
III. 자본시장 고도화	'21~35년	• 14.5 경제규획 자본시장 선진화 발표('21.3월) •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24년)** • 15.5 자본시장 고도화 타깃, 산업 고도화와 개방 확대	• 상해 3,000~ 6,000pt • CSI 300 4,000~ 7,500pt * 예상 범위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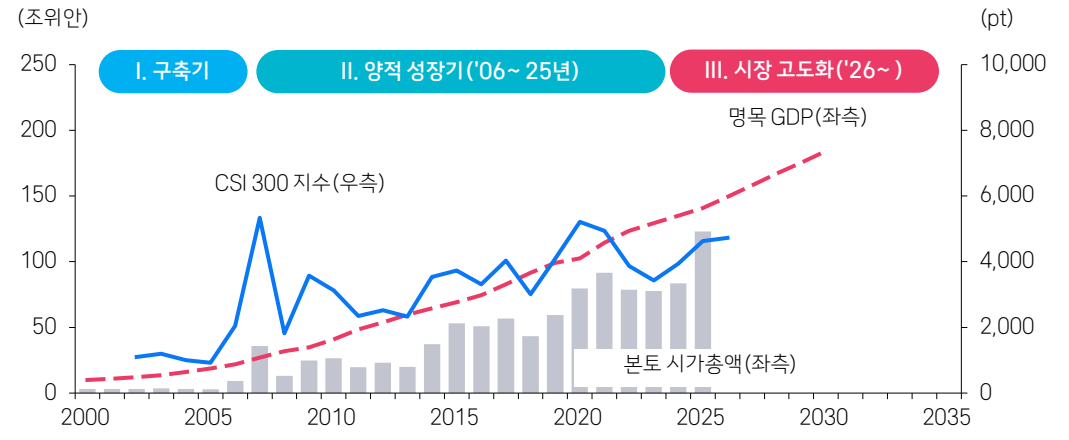
- **터닝 포인트: 중국 증시의 상승 전환은 구조적인 개선, 즉 자본시장 고도화의 신호탄으로 기대된다.** 중국 자본시장의 고도화는 1) 정책: 관리 감독 체계 강화, 2) 펀더멘털: 상장 기업 성장과 주주 가치 개선, 3) 유동성: 시장 개방과 중장기 자금유입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개선이 결합되어야 한다. 시진핑 지도부 3기는 적극적으로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한 정책 집행(국유 기업 개혁, ROE 개선 정책)을 시작하였고 지난해 1월 딥시크 모멘트를 기점으로 AI를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전환이 가속되고 있다.
- 15.5 경제규획이 시작된다. 향후 5년 중국 정부의 정책 목표는 『산업 고도화와 내수 확대』로 제시되었다. 중국은 AI 패러다임에 맞춰서 첨단 제조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내수 시장의 사이즈를 확대하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시진핑 지도부는 산업 고도화와 병행하여 자본시장 고도화 정책을 내놓았는데, 1) 신경제 비중 확대, 2) 주주 가치 제고(밸류업 프로그램), 3) 머니무브(가계자산 이동과 외국인 개방 확대)가 이어질 경우 중국 증시는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완화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중국 주식시장 주요 경과

구분	연도	상해종합		홍콩H 지수		비고
		지수 종가	연간 변동률	지수 종가	연간 변동률	(본토 증시 주요 이벤트)
I. 구축기	'05년	1,161	-8.3	5,330	12.4	• 비유통 주식 개혁 실시, IPO 잠정 중단
II. 양적 성장기	'06년	2,675	130.4	10,340	94	• IPO 활성화와 주가 급등
	'07년	5,262	96.7	16,125	55.9	• 상해 지수 첫 6천 포인트 돌파
	'08년	1,821	-65.4	7,892	-51.1	• 글로벌 금융위기, 지수 70% 급락
	'09년	3,277	80.0	12,794	62.1	• 중국판 나스닥 '차이넥스트' 거래 시작
	'10년	2,808	-14.3	12,692	-0.8	• 주가 지수 선물 거래 도입
	'11년	2,199	-21.7	9,936	-21.7	• 긴축 정책과 유로존 위험 → 주가 급락
	'12년	2,269	3.2	11,436	15.1	• CSRC 주식시장 부양책 발표
	'13년	2,116	-6.7	10,816	-5.4	• 신용 경색 사태, 변동성 확대
	'14년	3,235	52.9	11,985	10.8	• 통화 완화, 후강통 실시 이후 주가 급등
	'15년	3,539	9.4	9,661	-19.4	• 유동성 버블 붕괴, 서킷브레이크 사태
	'16년	3,104	-12.3	9,395	-2.8	• 미니 외환위기, 선강통 시행
	'17년	3,307	6.6	11,709	24.6	• MSCI 중국 본토시장 신흥시장 편입
	'18년	2,494	-24.6	10,125	-13.5	• 미중 무역 분쟁 개시, 약세장
	'19년	3,050	22.3	11,168	10.3	• 상하이 거래소 커창판(STAR) 개설
	'20년	3,473	13.9	10,738	-3.8	• 코로나 팬데믹, 증시 부양정책 시행
III.자본시장 고도화	'21년	3,640	4.8	8,236	-23.3	• 공동부유, 기업 규제 심화
	'22년	3,089	-15.1	6,705	-18.6	• 제로 코로나,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
	'23년	2,975	-4.0	5,769	-14.0	• 리오프팅 기대, 부동산 위기 가중
	'24년	3,352	12.7	7,290	26.4	• 중국 정부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
	'25년	3,969	18.4	8,914	22.3	• 경기 부양과 통화 완화, 지수 회복세 전환
	'26년					• 15.5 시행, '산업 고도화와 자본시장 선진화

자료: CEIC, 삼성증권

장기 중국 주식시장 추이



참고: '26년 1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IMF, 삼성증권

'26년 증시 환경

세 가지 긍정적 요인

리스크 완화, 산업 고도화, 머니무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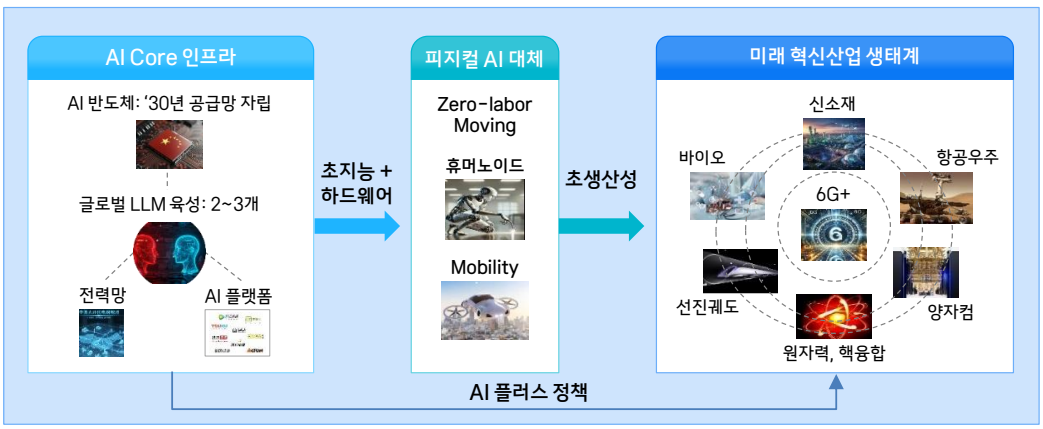
- **당사는 중국 경제의 하향 리스크가 지난 몇 년간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판단한다.** '20년 팬데믹, '21년 주택시장 침체, '22년 코로나 봉쇄 확대, '23년 글로벌 교역 둔화와 디플레이션 압력 확대, '24~'25년 미-중 무역 분쟁과 제조업 공급 과잉 우려 등 지난 6년간 중국 경제는 다양한 위험 요인에 시달려 왔다. 올해는 미-중 양국이 무역 분쟁의 잠정적인 봉합에 합의했고, 중국 정부가 제조업 공급 과잉을 관리하기 시작하였다. 그에 따라 당사의 '26년 중국 성장률 전망은 하향보다는 상향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중국 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첫째, 무형자산의 비중 확대, 둘째, 서비스 부문의 점진적인 확대, 셋째, 중국 기업의 대외적인 경쟁력 강화 추세 심화 등이다.
- **중국 주식시장에서 『신업 고도화와 머니무브』의 투자 기회를 주목한다.** 중국 정부는 15.5 경제규획 기간('26~30년) AI 테크 중심으로 산업 구조 재편을 추진할 것이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공급 개혁과 더불어 R&D 투자 증가율 8% 이상, 디지털경제 부가가치 20% 이상 제고를 타깃으로 삼을 것인데 차이나 첨단 제조의 부상은 "제조 패러다임 변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관점에서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 중국 첨단 제조 국산화 전략은 제조 2035로 대체될 것이며 AI 생태계 확장에 집중할 것이다.

중국 매크로 Dash board

(%)	'21	'22	'23	'24	'25	'26(예상)
GDP 성장률	8.4	3	5.2	5.0	5.0	4.3
소비자 물가	0.9	2	0.2	0.3	0.1	0.6
고정자산 투자 (명목)	4.9	5.1	2.9	3.3	(3.8)	2.5
부동산 투자	5.0	(8.4)	(8.1)	(10.8)	(17.2)	(12.0)
제조업 투자	13.5	9.1	6.5	9.2	0.6	3.0
산업 생산	6.7	3.0	4.6	6.2	5.9	5.2
소매 판매 (명목)	12.5	0.9	7.2	3.5	3.7	3.9
수출	29.7	7.0	(5.9)	7.1	5.5	4.2
위안/달러 (연말)	6.4	7.0	7.1	7.2	7.0	6.7

지료: Bloomberg, 삼성증권 추정

산업 고도화의 핵심은 China AI Pivot



자료: 삼성증권 정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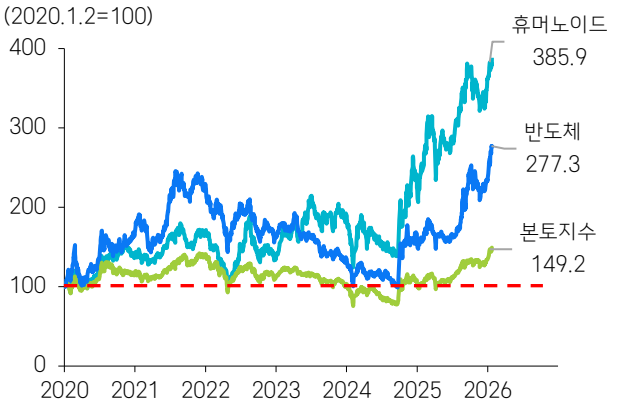
- **과거 사례: 제조 패러다임의 변화와 전략 산업의 상용화 시점은 투자의 기회이다.** 최근 10년, 중국 증시의 장기 침체 국면에서도 인터넷 플러스 밸류체인과 전기차/배터리 상용화 대표주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기록한 바 있다. 중국의 전자 상거래와 전기차 시장이 글로벌 1위로 부상하면서 '16~20년 인터넷 대표주와 '20~22년 전기차 밸류체인 주가 상승률은 각각 547.7%, 406.7%에 달하였다. 15.5 경제규획 기간 동안 AI 플러스 정책 관련 섹터 1) AI 코어 인프라(반도체, 플랫폼, LLM, 전력망), 2) 피지컬 AI 상용화(휴머노이드, 자율주행), 3) AI Usage(바이오, 우주항공)의 주가 상승을 예상한다.
- **머니무브: 차이나 머니무브의 출발점은 "가계 부의 증가"와 "금융환경 변화"이다.** 선진국 위기 이후 미국 가계의 금융자산이 2.8배 증가하는 동안 중국은 7.1배 급증('09년 10.0조 → '25년 70.8조 달러)하였다. 15.5 규획 기간 동안 부동산 침체 + 초저금리 + 자본시장 활성화로 인해 가계자산의 머니무브가 확대될 것이며 2030년 가계 금융자산은 10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증시 수급 구조에서 또 하나의 변수는 외국인이다. 외국인 투자자는 팬데믹 이후 정부의 기업 규제와 구조적인 경제 위험을 감안하여 본토증시와 홍콩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였는데 시진핑 지도부의 혁신기업 지원정책과 자본시장 활성화, 시장 개방 확대 조치에 따라서 중국 주식시장 비중을 점차 확대하여 향후 10년에 걸쳐 중국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을 두 자릿수 이상으로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

신기술 상용화와 주가 상승률

Stage	기간	산업정책/ 진행경과	주가변화
I. 플랫폼 혁명	'16~20년	'제조 2025, 인터넷 플러스 → 글로벌 전자상거래 1위	인터넷 +547.7% vs. 상해 -1.9%
II. 전기차 교체	'20~22년	친환경 세대교체 전기차 상용화 → 글로벌 전기차 1위 등극	전기차/배터리 밸류체인 +406.7% Vs. 상해 +1.3%
III. AI 혁명	'25~	제조 2035 , AI + Physical 상용화 → AI 하드웨어 Top-tier 최고의 가격 경쟁력 보유	반도체 +74.0% 휴머노이드 +71.7% Vs. 상해 +2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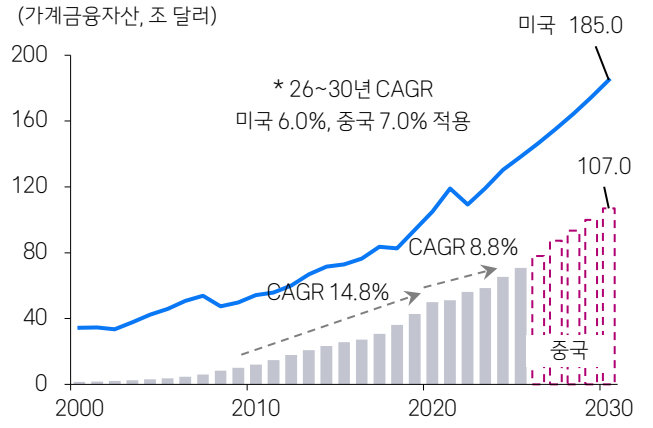
참고: '26년 1월 23일 기준/자료: Wind, 삼성증권

차이나 AI의 출발점은 '25년 딥시크 모멘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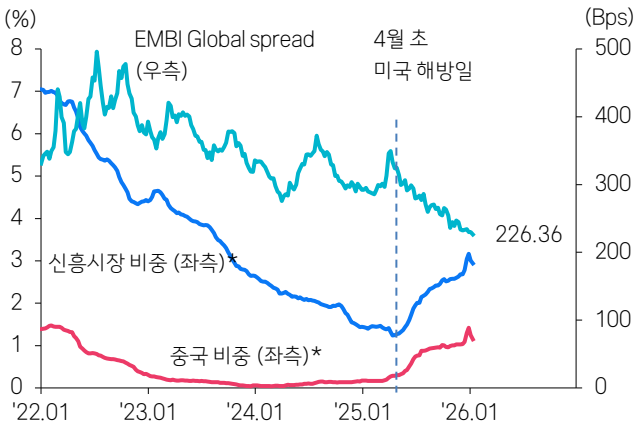
참고: '26년 1월 23일 기준/자료: Wind, 삼성증권

폭발적인 중국 가계 자산의 증가



자료: Bloomberg, Wind, 삼성증권

반가운 외국인의 귀환



참고: '26년 1월 기준
자료: EPFR, 삼성증권

미중 분쟁 전망

미중 분쟁 완화

다극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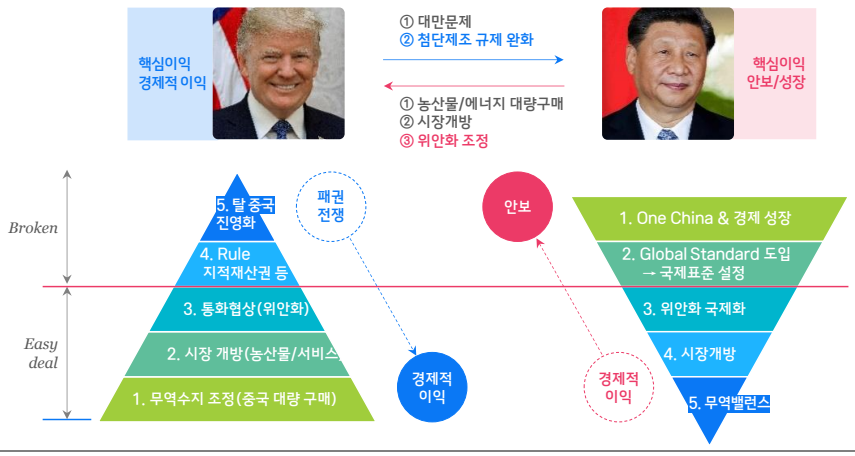
- **우리의 미중 분쟁에 대한 기본 시나리오는 올해 상반기 중 미중 협상이 진전되면서 미중 갈등이 완화되는 것이다.** 4월 트럼프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 시점이 2단계 무역 합의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미중 합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통상 합의 성과가 필요하고 시진핑 주석은 경기침체를 악화시키는 외부 충격을 완화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고관세 치킨게임이 초래하는 금융시장과 실물경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서 양국이 자유로울 수 없다.

  핵심 의제: 『미국 경제적 이익, 중국 안보 보장』 미중 무역 합의의 핵심 의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1) 무역 불균형 해소(2천억 달러), 2) 시장개방 확대, 3) 통화 합의(위안화 강세)와 시진핑 주석의 1) 관세 인하, 2) 첨단 제조 규제 완화, 3) One china가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년 1월 1단계 무역 합의 이행조건을 강화하고 무역관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정할 수 있는 통화 합의(위안화 강세)를 타깃으로 삼을 것이고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핵심 이익에 해당되는 〈경제 성장과 One China〉를 보존하는 협상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미국의 첨단 제조 규제 완화와 One China에 대한 지지 선언이 그 것이다.

  포스트 미중 분쟁: 『다극화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미중 분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했던 안보와 경제의 단극 체제가 〈다극화〉로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었다. 미중 분쟁 발발 이후 중국의 대 미국 수출 의존도는 2017년 19.1% → 2025년 11.1%로 8% 포인트 급감한 반면에 동일한 기간 동안 아세안 수출 비중은 12.5%에서 17.7%로 급증하였다.

  포스트 미중 무역 분쟁의 경과는 크게 (1) 글로벌 무역 구조 재편(다극화), (2) 위안화 조정, (3) 첨단 제조 공급망 변화 관점으로 볼 수 있다. 트럼프의 보호 무역은 중국의 확장 정책과 충돌하여 무역 구조 재편을 가속시킬 것이다. 위안화 통화 협상은 2단계 협상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미중 합의가 이루어지는 기본 시나리오 하에서는 10% 내외의 위안화 강세가 진행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첨단 제조 부문의 치열한 경쟁으로 글로벌 산업 구조와 공급망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미국의 첨단 제조 부문 사다리 걷어차기 전략에 맞서 중국은 거국적인 인적 자원과 자본 투입에 나서고 있다.

미국과 중국 핵심 이익 비교



자료: 삼성증권 정리

투자 전략

차이나 AI 테크에서 찾는 투자 기회

점진적인 리레이팅 전망

- **중국 주식시장은 완만한 펀더멘털 회복 구간에 진입하며 점진적인 지수 상승이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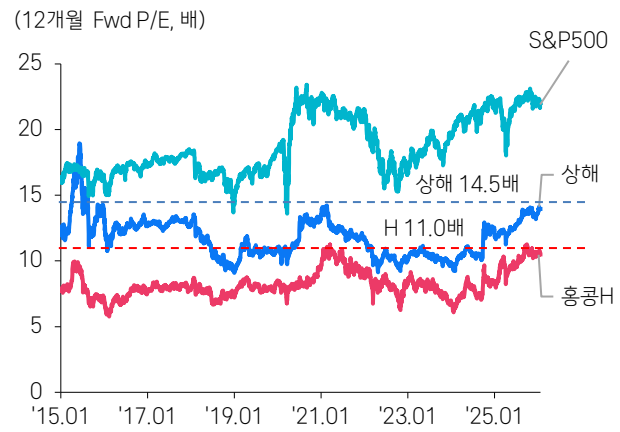
15.5 경제규획 기간은 중국 자본시장 고도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시간이다. 시진핑 지도부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한 〈경제 고도화〉는 산업 구조 재편과 함께 자본시장의 리레이팅이 동반되어야 한다. 중국의 정부 정책은 자본시장 활성화로 포커스가 이동하였다.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은 '투자자, 상장 기업, 감독기구'의 체질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자본시장 개방과 신경제 중심으로의 산업 구조 재편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중국 주식시장은 친자본시장 정책, 산업 고도화와 머니무브의 삼각 축이 확대된다면 만성적인 밸류에이션 트랩에서 벗어나고 시가총액이 경제 규모로 수렴되어갈 수 있다. 경제 규모 대비 시가총액을 의미하는 버핏 지수(Bloomberg)의 경우, 글로벌 평균 1.3배, 미국 2.3배인데 비해 중국은 0.7배에 그치고 있다. 자본시장의 질적 개선이 동반될 경우, 중국 본토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버핏 지수 1.0에 해당되는 30조 달러를 돌파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의 대중국 주식 투자는 바닥 통과 예상: 후강통 시행 이후 급격한 중국 증시의 변동성을 경험했던 한국 투자자는 본토증시와 홍콩 주식시장에서 이탈하였다. '14년 해외 주식 투자 붐과 함께 찾아온 중국 주식시장 강세장에서 한국의 중국 주식보유 규모는 28억 달러(본토+홍콩)로 전체 해외 주식 비중 1위(44.4%)를 차지하였으나 중국 유동성 버블 붕괴와 미국 증시의 장기 호황의 영향으로 '25년 말 기준 한국 투자자의 중국 주식 보유 규모는 30억 달러로 해외 주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8%까지 급락하였다(미국 93.7%). 중국의 기업 규제 정책과 경기 침체 국면을 감안할 때 리스크 관리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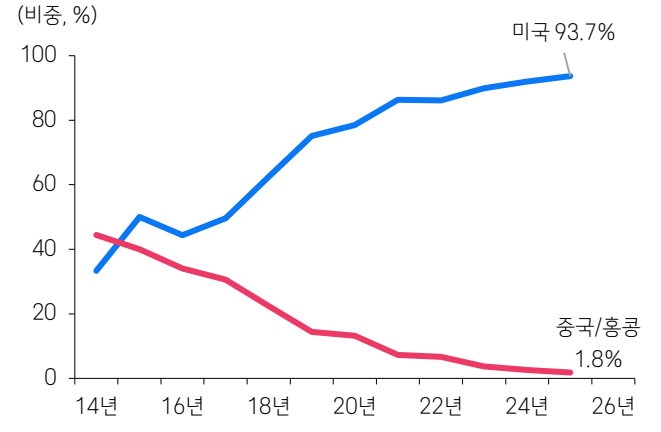
다만, 중기적 관점에서 중국 투자 비중은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AI가 촉발하는 산업 패러다임 시프트 과정 중에서 미-중 기술 전쟁이 첨예하게 이루어질 것인데 미국이 혁신을 주도하고 중국이 상용화에 앞서는 상황을 감안할 때 경제 구조와 글로벌 공급망의 다극화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 적정한 주식 분산 전략은 리스크 방어와 함께 수익률 기회 관점에서 유리하다.

장기 밸류에이션 트랩에서 벗어나는 중국 증시



참고: 26년 1월 23일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한국 해외 투자자의 중국 비중 바닥 통과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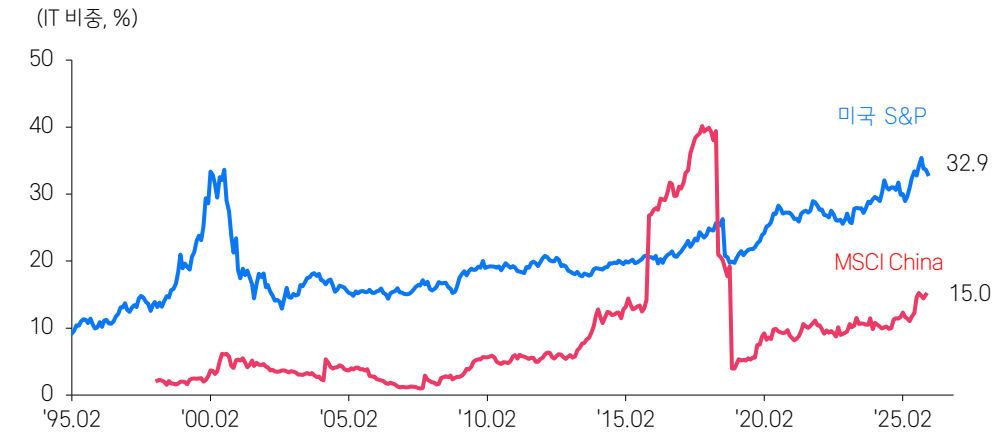


참고: '25년 말 기준
자료: 한국예탁결제원

포트폴리오의 핵심은『차이나 AI 테크』

- 차이나 포트폴리오는 AI 테크를 중심으로 구축할 것을 권한다. 15.5 경제규획의 산업정책과 자본의 재배치는 차이나 AI 테크의 시간을 의미한다. 중국은 '35년 G2 기술 대국을 목표로 전략 산업 육성에 돌입하였는데 AI 생태계 확장을 의미하는 AI 플러스가 산업정책의 근간으로 선정되었다.
- **구조적인 성장 스토리를 보유한 차이나 빅테크 중심의 대표 기업과 ETF 매수 전략이 유효하다.** 중국 증시에서 IT 섹터가 차지하는 비중은 15.0%에 불과하여 미국(35.5%)과 한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미중 분쟁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중국의 공급 개혁이 더 공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첨단 제조 투자 붐이 확대될 것이다. 차이나 AI 산업은 크게 1) AI 코어 인프라(반도체, LLM, 플랫폼, 전력망), 2) 피지컬 AI(휴머노이드, 자율주행), 3) AI Usage(바이오, 우주항공)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국의 AI 플러스 정책은 글로벌 공급망의 급격한 변화를 동반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며 중국 AI+ 포트폴리오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중국 증시, IT 비중이 큰 폭으로 상승할 전망



참고: '26년 1월 말 기준
자료: Bloomberg, 삼성증권

미국-중국 시가총액 Top-10 변화(2000~2025년)

(십억달러)	미국(US)			중국(China)		
	'00년	'15년	'25년	'00년	"15년	'25년
1위	MS(606)	애플(598)	엔비디아(4,539)	차이나모바일(150)	공상은행(249)	텐센트(694)
2위	GE(508)	알파벳(522)	알파벳(4,027)	페트로차이나(35)	페트로차이나(222)	알리바바(403)
3위	시스코(352)	MS(441)	애플(3,774)	시노펙(14)	건설은행(204)	공상은행(354)
4위	월마트(302)	엑슨모빌(324)	MS(3,495)	유니콤(12)	차이나모바일(201)	농업은행(342)
5위	엑슨모빌(282)	버크셔(323)	아마존(2,548)	중국은행(10)	알리바바(200)	건설은행(326)
6위	인텔(280)	아마존(318)	메타(1,694)	레전드(5)	농업은행 (173)	페트로차이나(271)
7위	화이자(206)	메타(296)	브로드컴(1,540)	환능전력(4)	텐센트 (162)	중국은행(245)
8위	루슨트(200)	J&J(284)	테슬라(1,447)	상하이차(3)	중국은행(159)	마오타이(241)
9위	IBM(195)	GE(281)	버크셔(1,043)	남방항공(2)	차이나라이프(111)	CATL(228)
10위	시티그룹(188)	JP모건(243)	일라이릴리(952)	바오스틸(2)	시노펙(90)	차이나모바일(222)
합계	3,119	3,630	25,059	237	1,771	3,326

참고: 붉은색은 IT 기업 표시
자료: Bloomberg, Wind

삼성증권

삼성증권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1(삼성전자빌딩)
Tel: 02 2020 8000 / www.samsungpop.com

삼성증권 Family Center: 1588 2323

고객 불편사항 접수: 080 911 0900

Member of
Dow Jones
Sustainability Indices
Powered by the S&P Global CSA